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0호 [루게 제23232호] 주체99(2010)년 10월 7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창건 65돛에 즈음하여 진행된 은하수 《10월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들과 함께 조선로동당창건 65돛에 즈음하여 진행된 은하수 《10월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경축음악회를 보게 된 관람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제 관람자들은 탁월한 사상 리론활동과 강력한 령도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선군혁명의 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실것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관람자들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통성명령을 위해 한몸바쳐 투쟁하고있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영남동지, 최영립동지,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춘동지, 김극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김경희동지, 강석주동지, 변영립동지, 리용무동지, 주상성동지, 홍성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장성택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주규창동지, 리태남동지, 최락태동지, 태중수동지, 김평해동지, 우동숙동지, 김정각동지, 문경덕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대표자회 참가자들이 음악회를 함께 보았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설화와 녀성독창 《당을 노래하노라》, 합창 《백범백승 조선로동당》, 혼성4중창과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혼성3중창

과 합창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 관현악과 합창 《혁명을 위하여》, 남성독창 《전사의 길》, 녀성독창 《인민사랑의 노래》, 《평양의 노래》, 남성3중창 《우리 민족 제일일세》, 녀성2중창 《당을 따라 청춘들이 앞으로》, 민족기악2중주 《비날론 삼천리》, 남성5중창과 합창 《주체철 제일이야》, 관현악 《웃음꽃이 만발했네》, 혼성4중창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설화와 음악 《동지애의 노래》, 합창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당의 기치따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풍만한 정서와 혁명적열정으로 충만된 음악회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백승을 떨쳐온 우리 당의 65성상의 자랑스런 투쟁행로와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바라던 리상과 녀원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위대한 로동당시대를 격조 높게 노래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의 령도자 주체혁명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을 위하여 질풍같이 내

달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기개와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역사를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음악회를 보면서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우리 당이 걸어온 승리의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긍지를 안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아버지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흥분의 열정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녀원을 그대로 반영한

사상에술성이 높은 최상급의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은 지난 65년간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거창한 변혁과 창조적 보람찬 역사를 거놓아왔다 하시면서 이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하고 우리의 혁명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예술인들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특색있고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공헌함으로써 주체예술발전의 크게 공헌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앞으로도 예술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 우리 군대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충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인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령도자 각하

각하
나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돛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가장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언제나 건강하십시오와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승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0년 10월 3일 디마스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일조국교정상화련락회 공동대표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며 조선로동당창건 65돛에 즈음하여 그에게 일조국교정상화련락회 공동대표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시미즈 스미코 공동대표가 5일 해방 부분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65돛 경축행사 기내에서 진행

그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두차례에 걸쳐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띄웠고 초고속전력기기를 건설하였으며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고 CNC기술의 최종단계를 실현하였다.

기내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 아브둘라에 디알로는 《사회주의위업의 항도자》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우리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리익을 반영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는 절대적인것이며 그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해나가고있다.

조선인민은 허리띠를 조이면서 간고한 투쟁을 벌려 마침내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현실로 펼쳐놓고있다.

그는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위대한 당의 위업 끝까지 받들리 당창건 기념탑을 참관한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신념과 의지

당창건기념탑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를 웅변으로 전하는 기념비적장소이다.

만수대대기념비와 마주한 대웅강변의 경치아름다운 문수지구에 시대의 기념비로 웅장하게 일떠선 이곳으로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물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도 끊임없이 찾아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들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자랑스러운 의무로 여기고있으며 당의 령도를 영원히 받들어나갈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460여만명!
이것은 주체84(1995)년 10월 당창건기념탑이 준공된 때로부터 지난 15년간 이곳을 찾은 참관객들의 수이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돛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만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전세의 위인들의 당건설업적을 길이 전하는 당창건기념탑을 찾았다.

주지시대의 새형의 당, 주체혁명의 대종당으로서의 성격과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위력, 높은 권위를 보여주는 기념탑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뜻깊은 감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특히 세계의 기본관심을 감싸고있는 원형의 내부에 형성되어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부리와 일심단결의 위근로자들, 인류사주위업수행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세련된 동부각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당의 창건자에 대한 뜻을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하고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역사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적당의 불멸성과 위력에 대하여 통속적으로 폭넓게 해설하는 강사의 이야기는 참관자들에게 더 큰 감명을 안겨주었다.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성된 당창건기념탑은 아버지수령님과 우리 당의 고귀한 업적을 력사에 길이 빛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고귀한 결정체로서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불태우고있다.

당창건기념탑건설의 발기와 완공, 건축물의 구체적인 구성과 매

개의 형상에 이르기까지에는 우리 당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어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안목과 예지, 고결한 총정과 혁명적의리의 세계가 비껴있다.

세상에는 력사적사변이나 위인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탑들이 많다. 하지만 당창건기념탑처럼 위대한 당의 창건자이신 우리 수령님의 당건설리념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당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주는 기념비는 없다.

하기에 수많은 참관자들이 당창건 기념탑을 찾아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과 그것을 더욱 빛내어 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등 전국각지에서 온 참관자들은 당창건기념탑을 돌아보면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어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담보를 마련하신 아버지수령님과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당을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찬탄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성정치대학의 학생들과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이 당창건기념탑이야말로 주체혁명의

사회주의한길로 즐기치게 나아가는 강위력한 당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

국제사회계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건설하고 선군혁명의 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민주공화국 정전된 루모바주의 애국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주체의 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시며 사상리론과 령도의 거장이신 김정일각하를 총비서로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체의 당으로,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 위용떨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수아라 카

트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김일성주체에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조선로동당의 지도리념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의지를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안에 주체사상이 팽 들어차게 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말레이시아신문 《팡팡일보》는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리념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문제를 오로지 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체의 구상과 의도, 방식대로 풀어나가시였다. 하여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 추후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대가 강한

분자들의 행동을 단호히 짓부서버리셨으며 수경주의, 기회주의가 당내에 당하지 못하게 하시였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은 김정일각하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발전공부화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 나가는 불패의 권위자로 되시시였다고 하면서 그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주체의 당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며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10월의 대축전을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는 긍지

총공세의 불길높이 새로운 위훈을 창조

금속공업부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당창건 65돐을 로력적 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금속공업부분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김철과 성장, 강선과 황철 등 줄지의 절삭산기기술자들에게 연료에 의거한 주철 생산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절삭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 자랑찬 성과를 거둔 소식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전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에 땀땀이 들어설 불타는 열정에 넘쳐 총공세의 양자에서 전진투쟁을 벌여놓는 금속공업부분 로동계급의 투쟁기풍과 일본세는 참으로 자랑스러울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금속공업부분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술개진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여 주체철에 의한 감철생산체계를 하루빨리 완성하며 생산능력을 높여 경제강국건설을 위해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 대한 우리 당의 높은 뜻

을 심장깊이 새긴 각자 금속공업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우리의 원로, 연료조건에 맞는 철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여 왔다.

어머이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금속공업의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로동계급적으로 명도하시었다. 금속공업의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주체철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날이 갈수록 뚜렷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금속공업성의 일군들은 어머이수령님의 유훈과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각자 금속공업에서 주체철생산공정들을 더욱 완비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성에서는 해당 부문의 과학자들과의 면담에 가지어는 연구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있으며 이 과정에 각자 금속공업에서 주체철생산공정들이 새로 꾸러져가 보다 완비되고있다.

김책체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생활대고조의 선봉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간직하고 해당 단위 과학자들과의 면담에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주체철용광로의 동용을 높이 올리였다. 현대적인 원료식련속조각기의 조립을 보장하고 편이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한 김철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편파적인 과학자들과 함께 열간압연공정의 현대화에 또다시 달려들어 피타는 탐구와 열정으로 가열로에 최신기술을 도입하는데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야금공업력사에 없는 혁명을 일으킨 선진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능력을 더욱 확장하고 현대적인 기술수단으로 로조작을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철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거주신 크나큰 믿음을 간직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당창건

65돐을 맞이하여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이들은 올해에 2호초고전력전기로 새로 일떠세우고 보철제조소에 현대적인 산소분리기를 새로 설치하는 등 여러 대상을 개건하고 정련, 합금강생산에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으며 과감한 돌격전을 벌여 방대한 공사과제를 훌륭히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년간 쇠돌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은물광산과 재령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은물광산에서는 중진에 비해 운영반능력을 훨씬 높일수 있는 현대화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광생산능력을 늘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있으며 재령광산에서는 전방이 좋은 재굴장을 마련하여 쇠돌중산의 물과구를 열어놓았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양자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는 금속공업부분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의 명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보다 높은 목표를 경명해나갈 비상한 열의에 충당되어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전력생산에서 높은 실적 기록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는 수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대고조의 불길높이 10월의 대축전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한 마음안고 전력생산투쟁을 즐기차게 벌려 온 각자 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뜻깊은 올해 정초부터 지금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많은 전력을 더 생산하는 자랑을 떨치였으며 추천한 기세로 계속 전진해나가고 있다.

9월체계를 빛나게 수행한 허천강발전소와 강계연발전소, 부진강발전소의 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총공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높은 수위, 높은 효율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요즘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 배이상의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발전전기의 효율을 끊임없이 높여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성에서는 각자 발전

소들에서 발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특히 수력발전소들을 만반으로 돌리기 위한 사업에 확력을 집중하면서 겨울철생산대책을 예견있게 세워나가고있다.

수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수력구조물관리에 큰 힘을 넣으면서 발전설비들의 효율을 높여 전력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력중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

9월체계를 빛나게 수행한 허천강발전소와 강계연발전소, 부진강발전소의 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총공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높은 수위, 높은 효율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요즘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 배이상의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발전전기의 효율을 끊임없이 높여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성에서는 각자 발전

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은 3.4 분기 전력생산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기세를 늦추지 않고 총공투쟁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들은 발전설비들의 관리운영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면서 매일 계획을 어긋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다.

대동강발전소의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설비관리를,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면서 대고조전투쟁에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자하고 있다.

태천발전소, 남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전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에 땀땀이 들어설 한 마음으로 증산투쟁을 즐기차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발전설비들의 보수정비를 신속히 하면서 합리적인 부하부담을 실현하여 날마다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주체공업의 위력 떨치며 최첨단 CNC 기계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가고 있다.

— 면하기계 공장에서 —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지표별로 생산장성

잠업비 단지도국아래 공장들에서

당창건 65돐을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잠업비 단지도국아래 공장들이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9월 말현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담요는 1.9배, 잠방직사는 1.8배, 비단실은 1.3배, 비로도는 1.2배로 생산이 크게 늘어났으며 박천전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 연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질 높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문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도국의 일군들은 모든 공장들이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원료, 자재를 넉넉히 보장해주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들끓는 생산현장들에 내려가 대중을 증산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정숙영양제사공장을 비롯한 여러 제사공장들에서 비단실과 견방직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숙영양제사공장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백두산위훈들의 기교와 시대적미기에 맞는 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9월 중순에 연간 일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냈으며 연이어 연간 담요생산계획도 빛나게 수행하였다.

안주, 팔원, 금야, 덕천전직공장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고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달겨진 생산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잠업비 단지도국아래 각자 공장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정경철

을 높이 올리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한 방침에 떨쳐나선 박천, 냉변전직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달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한 기세로 이달에 들어와서도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박천전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제품의 질보장을 첫차리에 놓고 인민들의 기교와 시대적미기에 맞는 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9월 중순에 연간 일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냈으며 연이어 연간 담요생산계획도 빛나게 수행하였다.

안주, 팔원, 금야, 덕천전직공장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고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달겨진 생산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잠업비 단지도국아래 각자 공장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정경철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의 10월의 푸른 하늘가에 승리자들의 환호성이 메아리쳐가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대고조전군을 다그쳐온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끝없는 길이와 자랑에 넘쳐 보람찬 투쟁의 나날을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식량문제를,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올해의 날씨는 대단히 좋았다. 그러나 공물사설과 땅의 진투적조소를 높이 만들고 산악간이 펼쳐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신심과 용기를 안고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집단주의의 위력이 낳은 열매

파언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애마다 농촌들을 끊임없이 현지도하시며 몸소 풍년열매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어찌 10월의 풍요한 가을을 생각할수 있었습니까?》

선군혁명정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 3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찾으시어 전국, 전민이 농사에 계속 총력투쟁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 소식은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불굴의 정신클을 발휘할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서 되었다.

—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

이런 신념과 의지의 웨침은 온 나라 협동농장에 새채를 울려 퍼졌다.

현지도도단위들이 집단적정신의 불길높이 올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투쟁의 양자에 있다. 사리원시 미곡, 태천군 은흥, 함주군 동봉, 봉천군 신암, 제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한 마음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 모내기를 집적으로 끝내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작물비배관리를 진행하여 일찍 열매를 가꾸었다.

집단적정신으로 이 단위를 따라앞서려는 맹렬한 추진력이 힘있게 벌어졌다. 강서구역 정산, 평원군 원화, 안악군 오곡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에서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모내기 성과를 높이고 계속하고 강에게서 전례없는 좋은 결과를 창조하였다. 수천군 약전, 신천군 새날농장과 운전군 운학협동농장을 비롯한 크나큰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창건 6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농사를 빛나게 계속하기 위해 진군속도를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자라온 농사짓는 농장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났다. 과학농사의 불길이 세계를 타고가는 곳마다에서 유가농장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성과를 이룩하고 있으며 두벌농사는 물론 세벌농사를 짓는 농장들이 늘어났다.

지난 5월 백암군 덕포리에서 일떠서고있는 대규모의 김초농장을 현지도하시면서 감자농사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온 나라 농촌들에서 감자농사의 열풍이 휘몰아쳤다.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위훈을 수놓아온 보람찬 그 나날들을 회고하는 이들은 각자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창건 6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농사를 빛나게 계속하기 위해 진군속도를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현대화의 높은 단계에 올라선 파수업

당창건 6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파수업은 도 얼마나 비약적으로, 얼마나 현대화의 보다 높은 단계에 도달했는지 말할수 없는 성취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파수업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 현대의 구상을 인식하고 우리의 현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원광명에 대규모의 대동강과 수종합강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도록 크나큰 로고를 바쳐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종합강장을 찾으시어 나라의 파수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을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책적인 령도는 파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더 밀어준 힘의 원천이였다.

얼마나 강의 덕이 역센 두지가 파수농장들에서 맥박처럼 가슴에 두근거리고 있는 파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새 모음이 펼쳐지고있다.

《우리 파수업만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과 현명하신

령도속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빛발아래 내 조국 땅에 파수업이 현대화의 보다 높은 단계에 도달했는지 말할수 없는 성취를 이룩하고있다.

원광명에 대규모의 대동강과 수종합강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도록 크나큰 로고를 바쳐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종합강장을 찾으시어 나라의 파수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을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책적인 령도는 파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더 밀어준 힘의 원천이였다.

얼마나 강의 덕이 역센 두지가 파수농장들에서 맥박처럼 가슴에 두근거리고 있는 파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새 모음이 펼쳐지고있다.

《우리 파수업만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과 현명하신

군 군인건설자들과 618건 설비적대원들은 우량종파의 과일나무발달을 높이고 과일모판과, 사과발원편공장을 훌륭히 건설함으로써 선진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최첨단 공장을 펼쳐놓고있다. 그 기세로 분발해나선 이들은 대동강강원종합강장건설장을 비롯한 공사장마다에서 눈부신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고산파수농장 현대화공사에 동원되어 1단계 토지정리를 끝내고 2단계 트리정리와 살림집건설에서 날에날마다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618건 설비적대원들의 투쟁이야기도 감동없이 들을수 없다. 돌격대원들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정초날에도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기 때문에 기간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대한 구상을 꽃피우는데 자기 모든것을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고산당에는 천지개벽의 새 모습이 펼쳐지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당의 총지령명령을 받고서 키 낮은 사과나무발달을 훨씬 높여 과일생산능력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덕성, 정평, 동림파수농장들, 고려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 그 덕을 본 온천, 사리원 파수농장들, 현천에서 그 효능이 확증된 식물성영양을 적극 받아들이며 병해충피해를 막는 대신 성과를 이룩한 룡천, 배산 파수농장들...

파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청년파수원들에서는 많은 파일이 생산되어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나날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파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대한 구상을 빛내는 현실로 꽃피워갈 불타는 맹세로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당창건 65돐을 맞이하며 각자 현대화된 생산기지에서 혁신의 소식들이 연일 전해지고있다.

— 하루 달달생산에서 최고수준을 기록, 지난해보다 높은 새로운 연간 축산물생산계획을 넘어서기 위해 —

9.27닭공장과 흥주닭공장, 사리원닭공장 그리고 사리원택지공장을 비롯한 현대화된 여러 축산기지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공물사설의 파업대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 달리는 이력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파간한 투쟁이 안어는 열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축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불길

축산물생산에서 이룩한 성과

기술적토대가 확고히 마련된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련한 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축산업을 발전시키면 단 백철식품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습니다.》

각자 현대화된 축산기지에서서는 년초부터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의 성과를 보다 공고히 하여 축산물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새채를 타고왔다.

9.27닭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 투쟁의 양자에 있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무정신을 심장마다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이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 말씀을 받들고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여 공장을 찾아주시

는 자랑찬 성과를 올리고 있다. 강계택지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방역시설들을 충실히 갖추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시기별에 따른 방역정중을 비롯한 예방치로책을 세움으로써 역병을 지난해보다 훨씬 줄였다. 흥주닭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의방역사업을 과학화하고 생산자들의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함으로써 닭달 생산을 늘이고있다.

이밖에 해주닭공장, 신의주 닭공장, 팜포리닭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리고 지역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축산물생산능력을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를 거두었다. 강계택지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방역시설들을 충실히 갖추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시기별에 따른 방역정중을 비롯한 예방치로책을 세움으로써 역병을 지난해보다 훨씬 줄였다. 흥주닭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의방역사업을 과학화하고 생산자들의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함으로써 닭달 생산을 늘이고있다.

이밖에 해주닭공장, 신의주 닭공장, 팜포리닭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리고 지역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축산물생산능력을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사회주의 문화농촌으로 전변된 선천 파수농장 본사기자 찍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평양 10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이 6일 3대혁명전선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한경숙 농공명예옹양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성시농공명예위원장 전용환, 사동구역 리현남새전문화농장 관리위원장 정영숙, 남변군 팔원협동농장 농장원 전원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로동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진행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혁명적대경사에 이어 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환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으로써 우리 인민은 민유전한 전위부대, 전투적참모부라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일대변영의 새 역사를 펼쳐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끄시

전국응변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창건 65돐경축 전국응변모임이 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응변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의 대중적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장구한 기간 주체혁명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당을 수령의 당, 강력한 항도적력향으로 꾸리시고 부강조국건설의 참모부를 마련하여주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우편 《높이 휘날려라 우리 당기발》에 출연한 함흥철도국 부원 고상국은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붉은 기록과 마지와 낮과 함께 빛을 새기고 승리와 영광을 떨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력사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의속에 새겨져 나뉘는 당기발을 추켜드리고 이 땅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세계의 정치원로이시라고 열렬히 칭송하였다.

인민봉사총국 직명해설강사 정금숙은 우편 《위대한 어머니 사랑》에서 인민의 최고화신인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인민들의 모든 행복과 리상을 꽃피워주시는 헌애의 은혜로운 사랑, 이 세상 천만어머니의 정에 비기지 못할은정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과 미려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높은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형성한 평양기부공공장 로동자 류영애의 우편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우편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에 출연한 조국실업농업대학 학생 김광국은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총대칭학을 내놓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혁명령도로 강성변영의 위대한 시대를 열으신 최출명 김일성장군님의 선군정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격찬하였다. 김일성고급학교 교사이자



【평양 10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창건 65돐경축 조선우표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영상을 모신 우표들이 전시회장에 있다.

전시회에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과

조선우표전시회 개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류영설씨, 판계부 일군들, 우표애호가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국가우표발행국 국장 허성길 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겸임하신데 대하여 축하하고,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고,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국가우표발행국 국장 허성길 이 개막사를 하였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당 창건사적관 참관

김정일장군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이 앞으로 승리만을 이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반제민족민주전선의 전위부대는 우리 민족의 리념밑에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참가자들

여러 공장, 기업소, 농장 참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겸임하신데 대하여 축하하고,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고,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국가우표발행국 국장 허성길 이 개막사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항일혁명렬사, 재중항일혁명렬사,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6일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항일혁명렬사 박길송가족, 재중항일혁명렬사 김철가족,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리민과 가족, 광성봉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장수전, 제정, 류현홍, 범덕림, 체세영가족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조선로동당 창건 6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측하단

만경대 방문

【평양 10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측하단이 6일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측하단 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할아버님인 김보현선생님과 할아버님인 리보익녀사의 묘, 아버지인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니인 강반석녀사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

항일혁명렬사, 재중항일혁명렬사,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 도착

【평양 10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항일혁명렬사 박길송가족, 재중항일혁명렬사 김철가족,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리민과 가족, 광성봉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장수전, 제정, 류현홍, 범덕림, 체세영가족들이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리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부소장이 그들을 맞이하였다.

해외등포축하단들 도착

【평양 10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윤길상 비행장에서 김치영 해외등포전국연합회축하단, 박용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오스트랄리아등포전국연합회축하단이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지영 해외등포전국연합회축하단, 박용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오스트랄리아등포전국연합회축하단이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리사일행과 주체사상 연구조직대표단들 도착

【평양 10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윤길상 비행장에서 김지영 해외등포전국연합회축하단, 박용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오스트랄리아등포전국연합회축하단이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리사일행과 주체사상 연구조직대표단들이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개천시 보부리와 안주시 송학리에서 새집들이

【평양 10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개천시 보부리와 안주시 송학리에서 새집들이 경사가 있었다.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을 앞두고 개천시 보부리와 안주시 송학리에서 새집들이 경사가 있었다.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을 앞두고 개천시 보부리와 안주시 송학리에서 새집들이 경사가 있었다.



항일혁명렬사 박길송가족, 재중항일혁명렬사 김철가족,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리민과 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광성봉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장수전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제정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류현홍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체세영가족, 재일본조선인측하단 전국연합회축하단, 재가나리조선인연합회 고문,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리사일행, 동광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대표단, 방갈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을미사변은 조선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침해한 일본의 국가테러범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론고장

지금으로부터 115년전인 1895년 10월 8일 일본반동정부는 정규무력을 위주로 한 대살인집단살을 못하고 조선왕궁을 습격하여 국왕의 처 민비를 무참히 학살하는 일대 참극을 빚어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을미년(1895년)에 벌어졌다고 하여 흔히 을미사변이라고 부르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본지배층의 야만적행위는 곧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한것으로 되며 전민적인 양가의 존엄을 침해한것으로 되는 것이다.》**
리조 26대왕 교종의 왕비였던

민비는 당시 왕궁내의 불화를 리용하여 국왕을 대변하고 국정을 다스리며 나라의 실권자, 국가권력의 대표자로 행세하고있었다. 일제가 침략무리를 내몰아 왕궁을 들이치고 민비를 참살한 국왕무도한 만행은 참으로 국가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엄중히 유린한 천주에 용납 못할 투대형국가테러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오늘날에도 그 진상을 은폐하고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회는 과거 일본침략자들이 민비학살을 어떻게 계획하고 야수적으로 감행하였는가를 만민에게 교발하기 위하여 이 론고장을 발표한다.

1. 을미사변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

을미사변은 뿌리깊은 일본의 대조선침략정책의 산물이었다. 명치유신을 전후한 시기부터 《정헌론》을 내뿜어 조선을 식민지화할 흥계를 꾸민 일본침략자들이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우리 나라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이때 조선봉건정부를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청나라세력을 끌어내놓고 조선을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 흥계에 두개 편대규모의 병력을 내몰아 조선왕궁을 점령하는 한편 신전포고도 없이 청나라합대를 불의에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이 전쟁을 통하여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세력을 밀어내고 독립적 지배권을 장악하여 식민지화에 유리한 지반을 닦으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그후 조선과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는 일본에 불리해져 버졌다.

청일전쟁후 일본은 조선의 반일투쟁은 강화되었을뿐아니라 짜리로써야 동북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강요하고 조선에 자기 세력을 펼칠기 시작하였으며 때를 같이하여 민비를 비롯한 친로파력도 대두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 침투하기 시작한 로씨야세력을 억제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친로파세력을 정계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세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짜리로써야, 프랑스, 도이쾰란드의 3국간섭으로 하여 대조선적배임이 급속히 허물어지는 새로운 위기에 부닥치게 되었다.

이 때 일본침략자들은 청일전쟁에서 그들의 승리가 명백해진 1894년 9월이후 우리 나라 혁신분파들의 갑오혁추진을 방해하고 농민군을 야수적으로 진압한 다음 친일내각을 조직하였을뿐 아니라 그후 조종하여 내무, 법무, 탁지부와 궁내부 등 조선정부의 각 부서에 일본인교문을 받아하고 불순한 《내정개혁》을 강요하고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2. 을미사변은 일본정부의 직접적 조정밑에 감행된 반인륜적테러범죄

을미사변은 과산의 운명에 직면한 저들의 대조선침략정책을 기어 이 실행할 목적밑에 일본정부가 조작한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였다. 당시의 력사자료들과 민비학살의 주범인 미우라의 모든 언행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민비를 그냥 살려두면 대조선지배권은 물론 이미 닦아놓은 지반마저도 허물어져서는 안될것이라는 최악의 상태에 이를수 있다는것이 명백해지자 일본정부는 민비를 암살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벌여갔다.

1895년 6월에 친일세력의 지반보존대책을 도한 일본정부는 내각회의후 민비암살작전의 책임자를 조선경찰감정관을 제기하면서 《...이 세계 안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유해적, 협력적, 무인적정책이 필요한데 나의 태도도 모두 이에 의해 결정된다.》(《민비암살》 일문) 고 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 침투하기 시작한 로씨야세력을 억제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친로파세력을 정계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세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짜리로써야, 프랑스, 도이쾰란드의 3국간섭으로 하여 대조선적배임이 급속히 허물어지는 새로운 위기에 부닥치게 되었다.

이 때 일본침략자들은 청일전쟁에서 그들의 승리가 명백해진 1894년 9월이후 우리 나라 혁신분파들의 갑오혁추진을 방해하고 농민군을 야수적으로 진압한 다음 친일내각을 조직하였을뿐 아니라 그후 조종하여 내무, 법무, 탁지부와 궁내부 등 조선정부의 각 부서에 일본인교문을 받아하고 불순한 《내정개혁》을 강요하고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인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3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기념행사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3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9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수님의 초상화 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4월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10.4선언발표 3돐에 즈음하여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의 반동일행등을 짓부셔 선전리행에 나선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리행을 주장하는 민족의 요구는 미국

일본에서 기념모임 진행

10.4선언발표 3돐 기념모임이 6.15공동선언이념해의추진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6.15일본지역위원회)의 주최로 9월 30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서송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국제통일국 부총장, 총련일군부, 각계층 동포를 그리고 6.15일본지역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특정 6.15일본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10.4선언은 6.15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성명 발표

리명박 《정권》은 반동일행등을 짓부셔 선전리행에 나선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리행을 주장하는 민족의 요구는 미국

일본에서 기념모임 진행

일본에서 기념모임 진행

일본에서 기념모임 진행

일본에서 기념모임 진행

일본에서 기념모임 진행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단죄

북침전쟁연습소동은 단죄

북침전쟁연습소동은 단죄

북침전쟁연습소동은 단죄

북침전쟁연습소동은 단죄

북침전쟁연습소동은 단죄

북침전쟁연습소동은 단죄

북침전쟁연습소동은 단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



《보안법》철해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평양 주제 99 (2010)년 10월 6일

